

1920~30년대 성교육에 대한 연구* - 기독교교육자 김필레의 『성교육』을 중심으로

서신혜 (한양대학교)

I. 서론

II. 성교육 논의 시발과 초기의 논란들

III. 당대 사회상에 대한 김필레의 진단

1. 김필레 약력과 서지사항
2. 김필레의 성교육 문제 진단

IV. 김필레 『성교육』의 강조 지점

1. 고상한 인격으로 조절하여 생산적 역할을 해야
2. 결혼은 정신, 육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결합하는 것
3.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처

V. 김필레 『성교육』의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8.07>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 ABSTRACT •

Christian Educator's Response to Initiative Arguments
on Sex Education: With Attention to *SEX EDUCATION*
FOR GIRLS by Kim Pilley

Seo, Shin-Hye(Hanyang University)

From 1920 to 1930 did divergent social changes appear, so called 'the age of date' which brought forth the issues of love and sex between male and female. It caused the need of sex education, which gave birth to a social atmosphere of how to deal with sex and date around 1933. Kim Pilley, as a founding member of YWCA in Korea as well as an representatively woman educator, published the book *Sex Education*. In that book, Mrs. Kim covered up the issues of sex and marriage in a broad way that her explanation did not reach to the unmarried youth, but also to the married couples. A few distinct facts appear in her discussion. Firstly, she accentuated the importance of how to make sex-desire a noble characteristics conducive to a socially positive production. Secondly, she did not disregard an economical phase of marriage at the expanse of that of mind and body in marriage. Thirdly, she stressed a legal aspect of marriage. To this fact should the presider of the marriage, specifically the pastor, pay more attention than the married couple do. Conclusively, *Sex Education* makes a scrutinized summarization of sex education itself in the time when only the necessity of sex education attracted social discourses. Also this edition could be an exemplary and aggressive response of Christian educator to ethical social issues, especially sex and its related problems.

Key words: Sex education, Adolescence, Sex-desire, Mrs. Pilley Kim, *SEX EDUCATION FOR GIRLS*, The relation by marriage, Bigamy

I. 서론

인간이 있는 한 성(性) 관련 사건과 논의는 반드시 있었다. 성 문제는 범위가 넓은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우리나라에서 성 문제를 공식적 교육 대상으로 인지하고, 그 실시 시기나 방법 등을 비로소 의논한 때는 1920년대 말이다. 이 때 성 교육은 윤리학(修身敎科), 가정학, 생리학의 범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1920~30년대 성교육 관련 논의를 살피고, 그 와중에 나온 김필례(金弼禮: 1891~1983)의 『성교육』¹⁾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30년대를 연구한 연구자 중 성의 문제를 지적한 이들이 여럿이다. 특히 신문, 잡지 등의 출판 자료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저작들이 발표되어 있다. 전미경은 근대계몽기에 새로운 의미로 부각된 국민과 가족의 의미를 살피면서 조혼, 축첩제, 남녀동등론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분석해내었고, 문옥표 등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온 ‘신여성’에 관해 논의를 펼쳤다.²⁾ 권보드래는 1920년대를 ‘연애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여학생, 구여성과 신여성, 연애, 육체와 사랑, 죽음 등 당대에 보인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였다. 천정환은 책 발간 및 독서 추세를 설명하면서 당대 사람들이 성 관련 서적에 심취한 상황을 설명하였다.³⁾ 이들을 비롯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1920~30년대 우리나라가 가족, 남녀, 연애 등 크게 보았을 때 남녀의 성 관련 문제에 몰입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
- 1) 조선예수교서회, 1935 출간. 이후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표기법은 그대로 하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와 같은 띄어쓰기만 하고, 해당 쪽수를 숫자로 표기한다.
 - 2)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서울: 소명출판, 2005); 문옥표 외, 『신여성』(서울: 청년사, 2003).
 - 3)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서울: 푸른역사, 2003), 171-202.

성의 면모 중에서도 성교육에 관해서만 다룬 연구는 드문 편이다. 박차민정이 ‘규범적 이성애’가 윤리적, 의학적 우월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였는데, ‘성과학 담론’을 살피는 과정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당시의 글을 소개했다. 관련 분위기를 살피기에 참고할 만하다.⁴⁾

오늘 청소년 성교육 문제를 다룬 책은 많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처음 이루어지게 된 상황을 다룬 책은 거의 보지 못하였다. 근대 성교육서의 초기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김필례의 『성교육』이다. 더구나 이 책은 기독교교육자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성경과 신앙의 언어를 다수 써 가면서 기독교윤리를 배경으로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먼저 이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살피기 위해 1920~3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도 특히 성을 ‘교육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게 되는 초기 모습을 살필 것이다. 그 후에 김필례의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피겠다.

II. 성교육 논의 시발과 초기의 논란들

성의 문제를 학문적, 이성적으로 논의할 때 이를 ‘성 과학’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 영문과 교수인 조셉 브리스토우(Joseph Bristow)가 정리한 것을 요약하자면, ‘성 과학’이란 독일인 의사 이반블로흐(Iwan Bloch, 1872~1922)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이것은 본래 인간의 성적 유형과 성적 욕망의 형태들을 분류하는 정교한 서술 체계를 개발하는 일종의 과학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니 사실 ‘성 과학’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에야 나온 것이다.⁵⁾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에서 성 관련 연구와 글들이 많이 나왔다. 사회

4) 박차민정,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애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 문화』22, 문화사학회, 2011, 29-51.

5) 조셉 브리스토우 저, 이연정·공선희 역, 『섹슈얼리티』(한나래, 2000), 17-35.

학, 의학, 인류학, 과학, 윤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런 경향이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로 유학을 떠난 일본유학생들이 많고 서양에서 일본에 와 있는 이들도 많았던 탓에 일본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성에 관한 서적들이 유통되고 사람들이 성에 심취하며, 성에 관한 온갖 문제가 일본 사회를 휩쓸게 되었다.⁶⁾ 조선에도 일본의 경향이 전달되었다. 일본에 유학 간 이들을 통하여, 혹은 일본에서 유입된 서적을 통하여 성에 관한 여러 정보나 글이 유통되었다. 1920~30년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다. 일본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한국의 상황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시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으로 성에 대한 태도 변화와 성 관련 사건의 빈번한 발생을 꼽는 이가 많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에서 ‘성교육’에 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성에 관한 관심이 늘고 성에 관한 범죄나 사회 사건이 많았지만, 그것이 곧장 ‘성’도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성교육에 관한 논의를 공적으로 제시한 것은 김윤경이 처음이다. 그는 잡지 『동광』 1927년 3월 5일과 4월 1일자 두 차례에 걸쳐 「성교육의 주창」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다. 그는 한 ‘어린 벗’에게 “성욕 만족이란 어떠한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가 얼굴에 대답을 얼버무렸던 것을 반성하며 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 후에 ‘성욕에 대한 그릇된 생각, 성욕을 귀중시 신성시 할 것, 성교육의 세계적 추세, 성적 생리와 성교육의 필요’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술하였다. 대체로 성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고, 실제적 신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춘기의 소년 소녀들이 성적인 나쁜 습성에 빠지지 않

6) 가와무라 구니미쓰 저, 손지연 역, 『섹슈얼리티의 근대-일본 근대성가족의 탄생』(논형, 2013) ; 간노 사토미 저, 손지연 역, 『근대 일본의 연애론-소비되는 연애·정사·스캔들』(논형, 2014) 등 여러 서적에서 이런 경향을 잘 담아내었다.

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경의 이 논의를 이후로 간간이 성교육에 관한 글이 잡지나 신문에 담겼다. 예컨대 천마산인의 「자유연애사상과 성교육문제에 대하여」라는 기사가 『조선일보』 1928년 9월 25일자에 실렸다. 『동아일보』에서는, 1929년 12월 1일과 3일 두 번에 걸쳐 “소년소녀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처녀가 적어간다, 이것은 性敎가 부족한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1931년 10월 9일, 1933년 9월 1일과 10월 5일 양일에 성교육 관련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게 된 것은 1933년에 와서이다. 그해 13세 소녀가 출산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리면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자유연애의 후유증, 성병, 동성애, 이혼, 외도 등 성에 관한 여러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에서도 당시는 ‘성’도 ‘교육’해야 한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성에 관한 ‘교육’을 미루거나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었던 것이다.

경기도내 각 여학교장이 긴급히 모이고⁸⁾ 신문에 관련 사실이 실렸다.⁹⁾ 여러 신문에서 성교육에 관한 연재기사나 기고문을 다투어 실은 것도 이때부터였다. 『매일신보』 역시 13세 소녀의 출산소식을 전한 후 이에 특집 캠페인을 기획하여 1934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性敎育을 새해부터

7) 현직 경관이 글을 가르친다 하고서 소학교 6학년이던 13세 소녀의 정조를 유린하여 출산한 사건이 평양에서 일어났다. 신문에는 소학교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출산한 병원 이름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 『동아일보』 1933년 8월 27일 2면.

8) 『동아일보』 1933년 8월 30일 2면. “頽敗한 最近의 風潮와 「性敎育」 實現說擡頭, 十三歲產母事件等 發生으로 京畿道各女校長召集”; 『매일신보』 1933년 8월 30일 “道內中等女生徒의 訓育에 關한 協議 十三세 소녀출산사건에 비취 性敎育方面에 置重”;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30일 “女學生 節操 問題로 女子中等敎長會議, 十三世 少女分婉 事件에 鑑하여, 訓育方針을 討議”

9) 1933년 9월 1일 6면(부인란) “婦人時惑 ; 家庭과 性敎育, 十三歲 少女의 分婉을 보고 (金慈惠)”

實施합시다”(4회~9회)라는 기사를 실었다. 사실 『매일신보』는 1930년 6월 24, 26, 27일 등 총 세 번에 걸쳐 「性教育」(1~3)이라는 기사를 신고는 더 이상 내용을 신지 않았다가, 13세 소녀의 출산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성교육 연재를 다시 이어갔던 것이다. 그래서 1934년 1월 9일, 10일, 16일, 18일 기사에 「性教育을 새해부터 實施합시다」라고 하면서 연재 회수 번호를 4회부터 9회까지로 적었다. 1930년에 실은 3회를 이었다는 표시였다. 『조선중앙일보』도 13세 소녀의 출산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본격적으로 성교육 관련 기사를 내기 시작하였다. 1933년 8월 31일 「성교육에 대하여」라는 사설을 낸 이래 연재를 이어 1933년 10월 23일까지 총 4회의 「성교육론」을 연재했다. 1934년에는 여러 사람의 기고문을 연속해서 냈다. 1934년 1월 3일 「여학생 풍기문제와 성교육문제에 대한 제씨의 의견(상), 학교와 가정의, 협력하여 교정해야 할 줄 압니다」, 1934년 1월 4일 「여학생 풍기문제와 성교육문제에 대한 제씨의 의견(하), 고압수단은 불가, 성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1934년 2월 22일 「성교육문제, 아들딸 차별 없이 자연스럽게 나무랄 때 때리는 것은 양심의 발현을 막는 것」이라는 기고문이 이어졌다. 1934년 9월 18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자녀교육에 없지 못할, 성교육은 어떻게?, 공연히 미신으로만 붙이지 말고, 적당하게 가르쳐주어야 됩니다」라는 글을 이어서 신기도 했다.

기독교의 경우, 13세 소녀의 출산 사건이 있기 직전에 성문제, 성교육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932년에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932년 12월 27일 조선기독교교육연맹총회에서 남녀전문학교 학생의 성교육과 교제에 관한 것을 의논하여 “각 전문학교에서는 성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학교당국이 솔선하여 때를 따라 남녀학생들의 사교적 회합을 지어주어 지도”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동아일보』에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선에서 특히 보수적인 줄로 비평받는 기독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이러한 결의를 한 것은 심히 흔쾌(欣快)한 일”이라고 평가했다.¹⁰⁾ 이런 결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서는 1933년 1월 1일자에 「躍進하는 朝鮮의 學界(一)」라는 제목으로 각 학교의 새해 운영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실었다. 여기에 「性教育 이리케 할 터 梨專의 初試」라는 제목으로 이화여전의 성교육 관련 다짐이 소개되었다. 그러다 13세 소녀의 출산 사건을 기점으로 성교육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기독교교육자의 대표자인 김필레가 『성교육』이라는 책을 쓴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책에는 마제 씨의 서문과 저자의 서문이 붙어 있는데, 마제 씨가 서문을 쓴 날짜가 1934년 2월 19일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원고를 1933년 혹은 1934년 초에 저술했다는 말이 된다. 1933년의 사건과 그로 인한 사회 분위기에 긴급히 부응하여 성교육 내용을 저술한 것이 김필레의 이 책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성교육 부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런 것이었다. 지금이 ‘성’을 ‘교육할 때인가 시기상조인가,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가, 부모인가 교사인가, 가정인가 학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인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로 해야 하는가 책으로 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10세 이하 등 어려서부터인가 사춘기 때부터인가, 누구에게 성교육을 해야 하는가, 여자에게만인가 남자에게도인가, 어머니에게만인가 아버지들에게도 해야 하는가,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생리학, 가정학, 윤리학 중 어느 부분에서 해야 하는가 등이 그 논란이었다.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별건곤』이다. 이 잡지사에서 사회 여러 지도층 인사에게 성교육 실시의 방책을 물었다. 보성고보(普成

10) 『동아일보』1932년 12월 31일 1면, 「男女學生의 交際, 基督教教育聯盟의 聲明」

高普)의 구인회(具中會), 중외일보사(中外日報社) 이상협(李相協), 불교전수교(佛敎專修校) 김법린(金法麟), 이화여고보(梨花女高普) 안형중(安衡中),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주요한(朱耀翰), 진명여고(進明女高) 남상찬(南相瓚), 중동교(中東校) 최규동(崔奎東)이 여기에 의견을 제시했다. 앞 단락에서 말한 대로, 이들의 의견은 성교육 시기, 주체, 방식면에서 여러모로 갈렸다. 특이한 것은, 이들 중 학교 교사는 ‘가정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신문사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¹¹⁾ 성교육의 필요는 있으나 서로 전면에서 나서는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잡지 『동광』에서도 성에 관한 설문을 돌려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각자 성을 어떻게 접했는지,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녀교제장려를 어떻게 할지가 설문의 내용이었다. 교육자, 문학자, 언론인 등 여러 사람이 각기 답변을 내 놓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성교육의 시작 시기, 성교육의 주체 등이 논란이 되어 분분한 의견이 제시되었다.¹²⁾

이와 같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에 성교육에 관한 필요성 논의가 제시되고 관련 언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누는 의견일 뿐이었다. 이때는 본격적인 성교육 내용까지 다루지 않았다. 이런 때에 김필레가 『성교육』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실제 성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여 보여준 것이니, 당시로서는 드문 예였다.

11) 『별건곤』19호, 1929년 2월 1일 「學校와 家庭의 時急問題 性敎育 實施 方策」

12) 『동광』28호, 1931년 12월 1일 「性에 관한 問題의 討論」(其一) 諸氏. (설문)

III. 당대 사회상에 대한 김필례의 진단

1. 김필례 약력과 서지사항

김필례는 한국기독교사에서는 물론이요 한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 가족 전체가 그렇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의 양반이었던 김필순의 할아버지가 황해도 장연에 자리 잡은 이래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황해도 장연이다. 만주에서 존 로스 목사를 만나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서상륜이 그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여기에서 탄생한 신자들에게 선교사 언더우드와 세례를 주었다. 기독교 신앙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 김필례의 아버지 김성섬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집안 전체가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다. 김성섬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다. 첫 부인과의 사이에 윤방, 윤오, 윤열이라는 세 아들을 두었고, 두 번째 부인인 안성은과의 사이에 아들 김필순과 딸 김구례, 김순애, 김필례를 두었다. 그 중 김윤방의 세 자녀 중 하나가 우리나라 대표 여성 독립 운동가 김마리아이다. 김필례를 기준으로 하면 김마리아는 그의 조카이다. 오빠 김필순은 세브란스의학교의 전신인 제중원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한국 최초의 면허 의사가 되었으나, 1911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만주로 망명한 후 거기에서 독립군을 치료하고, 군자금을 대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 언니 김구례는 서병호와 혼인하였는데, 서병호는 소래교회를 세운 사람이며 후에 장로교 최초 7명의 목사 중 하나가 된 서경조의 아들이었고 활발히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언니 김순애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여 일본의 한국 불법 점거를 알리고 규탄한 것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혼인하였다. 이들 부부가 매우 활발히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김필레의 가족이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 활동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또한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의 일원으로 기독교인이 된 한 가정이 그 신앙의 힘으로 공부를 하고 나라를 위해 활동하게 된 기독교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기도 하다.¹³⁾

김필레는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나, 지금의 정신여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연동여학교(漣洞女學校)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중고등부를,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정신학교와 광주 수피아여자중학교 교사와 교장을 역임했고 정신학교의 경우 이사장까지 역임했다. 김활란, 유각경 등과 함께 대한 YWCA를 창설하고, 각종 토론회의 강사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 평생 교육자의 삶, 사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김필레가 지은 책으로는 『성교육』이 유일하고, 번역서로는 『성공의 일기』(조선예수교서회, 1924, 연세대 도서관 소장), 『성경사화집』(조선기독교서회, 1940,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 등이 확인된다.¹⁴⁾

김필레의 『성교육』은 1935년 3월에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간되었다. 영문 제목은 “SEX EDUCATION FOR GIRLS”이다. 즉 여성을 주요 독자로 상정한 책이다. 정신여고와 수피아여고에서 교육자로 여러 해 활동한 저자가 특히 그들을 일차 독자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기독교 관련 출판 목록을 제시한 여러 연구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디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 「서문」에서, 김필레는 성문제

13) 2017년 3월 1일에 3·1절을 기념하여 KBS에서 ‘어느 가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김규식과 혼인한 김순애를 중심으로, ‘김순애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김마리아, 서병호, 김순애, 김규식, 김필순, 김필레 등의 활동을 방영하였다. 3·1만세 운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김필레의 활동은 소략하게 다루었으나 이 가문과 그들의 영향력을 정리하는 데에는 참고할 만 하다.

14) 김필레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그의 전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김필레 그 사랑과 실천』(북산책, 2012).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녀의 저서 『성교육』을 언급하지 않았다.

에 관한 책을 내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조심스럽다는 것을 말한 후 “일반 사회의 충분한 양해를 기다려 본서를 다시 증정출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책이 다시 출간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다.

김필레 저, 『성교육』 목차

서언
제一章 성교육의 필요 一. 성욕의 존재를 시인(是認)할 리유 / 二. 성에 대한 태도 / 三. 성교육의 처리자
제二장 사춘기(思春期)란 무엇인가 一. 신체적 징후(徵候) / 二. 정신적 징후
제三장 정당한 교제와 란잡한 행동
제四장 약혼과 결혼의 정로(正路) 一. 약혼까지의 경로(徑路) / 二. 약혼기에 이러나는 시험 / 三. 결혼의 정로
제五장 불행한 결혼 생활 一. 조혼(早婚) / 二. 결혼 후 중도의 불합 / 三. 고부간의 불화 / 四. 비법률적(非法律的) 혼인 / 五. 언쟁(言爭) / 六. 피차 리해가 부족한 것 / 七. 경제에 관한 원인 / 八. 분주한 중에 소격하여짐 / 九. 친구 교제 / 十. 마해자(魔害者) / 十一. 육체적 거절
제六장 산아제한(産兒制限)
제七장 독신생활(獨身生活) 一. 미혼자의 독신생활 / 二. 기혼자의 독신생활
제八장 정당치 못한 성적 생활 一. 수음(手淫) / 二. 동성 연애(同性戀愛) / 三. 화류병 혹은 성병(性病)
제九장 성과 사회(性과 社會) 一. 리혼(離婚) / 二. 연애 결혼(戀愛結婚) / 三. 공창(公娼)
제十장 성에 대한 건전한 정신적 태도

현대에 나온 성교육서적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춘기가 되고 2차 성징이 나타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녀가 되는 시기가 이 때이니, 이들이 성교육서적의 주요 목표 독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 결혼은 청소년기를 훌쩍 지나 20대 중반 이후에 하게 되니 성교육서적에 결혼 문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담기지 않는다.

하지만 1920~30년대에는 달랐다. 10대 초반에 조혼하는 경우는 특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는 대부분 혼인을 하였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녀로서의 신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결혼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성교육은 남녀의 신체 구조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결혼 문제도 다루어지는 것이다. 목차에서 잘 드러나듯이, 김필레는, 신체적 징후, 남녀의 건전한 교제에 관한 교육 내용 설명은 두 장에 그치고 나머지 부분은 결혼과 관련한 남녀의 문제를 다루는데에 할애했다. 한마디로 이 책의 독자, 즉 성교육의 대상은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 학생뿐 아니라 혼령기의 남녀, 혹은 이미 결혼한 청춘들까지를 포함한다. 학교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이를 통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든 것이다.

2. 김필레의 성교육 문제 진단

김필레는, 당대에 성 문제가 많이 생기는 원인을, ‘성을 비밀에 부친’ ‘봉건 사회의 인습’에서 찾았다. “여러 천년 간을 통하여 남녀七세(男女七歲)에 부동석(不同席)이라는 기빨 아래서 남녀 교제를 엄금하여...성의 문제는 그윽한 비밀리에 깊이깊이 묻어두고 그 주위에는 풍속과 인습으로써 담을 높이높이 둘러 싸웠던 것”(1쪽¹⁵⁾)인데, “이 본능을 눌러온 결과는 곧 전 민족의 도덕을 부패케하며 사회를 복잡케하고 가정을 문허트리며—신을 망케하는 것밖에 없었다.”(2)고 진단했다. 김필레는 이 책에서 성 문제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설명을 자주 했다. 성 문제 발생 원인을 ‘봉건 사회 인습’에서 찾고, 책 곳곳에서 기독교 신앙에 의한 아름다운 성을 설명하는 대목을 넣음으로써 은연 중에 기독교 신앙에 의한 조선 사회 변화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15) 이후는 ‘쪽’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숫자로만 표시한다.

김필레는, 이전 시기 인식과는 달리, 성욕은 “식욕(食慾)이나 재욕(財慾)에 있어서 주리면 음식을 구하고 간난하면 재산을 모호기 꾀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다만 그 본능을 정도로 작용시키고 못시키는 데 도덕 문제가 붙는 것뿐”이라 했다. 배가 고플 때 정당하게 음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나 남의 음식을 도둑질하면 부정하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성적으로도 이 방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수양을 받은 후에 정당한 성적생활”(3)을 하면 성욕은 전혀 불결한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성적생활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수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책 앞부분에는 마제 씨가 쓴 ‘서언’과 필자 김필레의 ‘서언’이 나란히 붙어 있다. 마제 씨는 자신을 “본서의 목적 곧 성문제(性問題)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인류의 생활을 일층 더 행복케 하려는 뜻을 찬성하는 자 중에 —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책의 목적은 한마디로 성문제를 이해하여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고 요약하였다. 김필레 역시

이제 본서를 출간함에 제하여 필자는 무한한 희망과 공포를 느낀다...아직 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새 문제인이 만큼 독자 제씨에게 었더한 인상과 영향을 끼칠 것이 문제이다. 단지 본 문제를 취급하시는 지도자 제씨의 철저한 지식과 진정한 동정이 성의 오묘한 리치를 연구하는 청년제씨의 신중한 태도와 협동되어 행복한 생활의 길이 독자 제씨들 앞에 전개되기를 빌 따름이다. (서언)

라 하였다. 성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드문 때에 이 책을 내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성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출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또 김필레는 성교육을 하되 부분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

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폈다. “어려서 성에 대한 질문을 받할 적에 만족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이에 대한 호기심은 기어히 활동하여 다른 방법으로라도 만족을 구하게 된다. 이같이 비밀히 여기저기서 조곰씩 조곰씩 얻어드른 성에 대한 지식이란 오착되고 불완전하며 그들의 얻은 감상은 성이란 비루하고 위험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 이상한 것인 줄로 안다.”(105)고 하였다. 성적 호기심은 강력한 것이라 그 호기심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부모나 선생이 가리게 되면 음성적인 방법으로 호기심을 채워 결국 더 나쁜 인식과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완전한 지식을 갖추어야 성에 대해 제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조절하게 된다는 언급은 이 책 곳곳에 나온다.

요컨대 김필레는 봉건 사회의 성욕 가리기, 성 교육하지 않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성교육의 부재가 당시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진단하였다. 성은 식욕이나 재물욕 같은 본능의 하나이므로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다만 정당하게 먹고 정당하게 재산을 불리듯 정당하게 성욕을 쓰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IV. 김필레 『성교육』의 강조 지점

김필레는 이 책을 통해서 생리학적인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설명하고, 사춘기의 여러 특성을 설명하기도 하였고, 임질이나 매독 등 성병이나 수음(手淫) 등의 성적 증상의 원인과 치료법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라 현대 어느 성교육 서적과도 다르지 않으므로 따로 논하지 않는다. 목차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김필레가 이들 성교육 내용을 다루면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그의 주장의 특성은 무엇인지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고상한 인격으로 조절하여 생산적 역할을 해야

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난 상황,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김필레가 해결책 혹은 예방책으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상한 인격’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생산적 사업’에 몰두하라는 것이었다.

김필레는 우선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서로 다른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을 시나 음악과 비유하여 그것이 결국 “조물주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소리”(17)와 같다고 하였다. 남녀의 연애 역시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설명으로 이어간다.

진정한 연애의 경로는 과연 어떠한가. 인생에게는 성적 본능이 있는이만큼 남녀의 연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은 一층 빛나고 가치있으며 고귀하고 신비하여지는 것이다. 어떤 남성이 여성을 만날 때에 마치 양(陽) 전기가 음(陰) 전기와 부딪칠 때와 같아서 그들의 심장은 격렬히 고동되고 전신의 피는 활발히 뛰는 동시에 저희 심지와 의지가 잘 조화되면 남 몰으는 진기한 정신이 새로워지고 이상이 솟아나며 저들의 결속은 더욱더욱 강하여진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추호만한 비밀도 없으라하고 피차에 자기 자신, 가족 및 그 친지들의 이야기까지도 하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은다. 이같이 하여 쌍방에 친애가 물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육체를 초월하여 정신적으로, 사업적으로 신비하고 심오하게, 영구하고 튼튼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저희 두 사이에만 한할 뿐으로서 이주 신성하고 고결한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 결합된 사상과 생활 전체가 그 가정을 비롯하여 사회, 국가, 전 세계에까지 은혜와 구원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되는 것이니 이야말로 참 아름답고 귀한 결합이라 하겠다.(22-23)

남녀가 서로 가까워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심지와 의지가 잘

조화”되어 “정신이 새로워지고 이상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실해지고 친애가 무르익으니 “사랑은 육체를 초월하여 정신적, 사업적으로 신비하고 심오하게 영구하고 튼튼하게 결합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하고 고결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세계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합이라고까지 했다. 전반적으로 남녀의 성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결’한 것임을 묘사한 것이다. 최대한 ‘육체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그 가치를 고양시키려 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 남녀의 결합을 이런 정신적인 맥락으로 연결시키는 논리는 계속 이어진다.

약혼의 바른 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 금수보다 나은 점은 곧 그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다. 성욕의 강함은 금수에 지지 안이하나 그 내부적 발동을 능히 제어하며 외부적 자극을 능히 물리치기면서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자를, 또는 —생을 통하여 고와 락을 가치 할 만한 자를 만날 때까지는 정조를 신성하게 완전히 보관하였다가 순결하고 지극한 사랑의 표로 피차가 즐겨 서로 바치는 것이야말로 과연 신성하고 고상한 것이다. (31~32)

동물적 성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힘으로 외부 자극을 제어하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날 때에야 서로의 소중한 정조를 바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 하였다. 동물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제어하고, 조절하는 내부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고상한 것이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 하에 여러 곳에서 ‘고상한 인격’을 말하면서 성과 결혼 관련 제반 문제를 이겨내라 요구했다.

고상한 인격을 성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과 동시에 ‘생산적 활동’을 또다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김필례의 특징이다. 김필례는 이

책 8장에서 ‘정당치 못한 성적 생활’로 수음(手淫)과 동성 연애, 화류병(혹은 성병)을 들어 원인, 치료법, 병의 종류 등을 자세히 말하였다. 수음에 대한 심리적 완치법을 말하면서, 성적 욕구를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인정하라는 것 외에 “이 본능을 바른 길로 응용할 때에는 종교, 미술, 문학, 공예 같은 데로 주입시켜 만흔 성공으로써 세계 인류를 부요케 하는 데 막대한 역할을 하는 능력인 줄로 자각하면 불량한 습관은 자연 타파될 것”(70~71)이라 했다. 동성연애를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눈 후 특히 선천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 조혼 방법은 성욕(性慾)을 다른 방면으로 집중(集中)시켜 어떤 생산적(生產的) 사업에 골몰케 하며 가급적 성적 자극을 피케 하는 동시에 동성 연애에 대한 비렬감을 떠나게”(75) 하라고도 했다. ‘생산적 사업’을 하기를 권한 것이다. 또 당대 사회의 문제였던 공창(公娼)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남자가 아내에게 거절을 당하여 “자기 속에서 불닐 듯 하는 성적 작용을 느끼게 될 때 그 성욕을 다른 생산적 사업으로 순화(純化)시킨다거나 정신적 방면으로 돌녀 혹 물질계 에나 사상계에 적극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비결을 전연 알지 못함으로 그는 다만 성적 욕망 그대로를 만족시키고져 수음(手淫)이나 공창(公娼), 혹은 사창(私娼)으로 향하게 된다”(101)고 설명하기도 했다. 어느 경우이든 성욕을 생산적인 면으로 돌려 해결할 것을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 잘 드러난다. 독신생활¹⁶⁾을 미혼자의 것과 기혼자의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어느 경우나 독신생활을 하는 목적을 ‘사업’을 위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 사업으로 ‘개인과 사회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68) 성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생산적 사업에 골몰’ 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이다.

16) 1930년대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독신생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김필레 사상의 진보성이라고 할 만하다. 독신생활을 다룬 초기 서적으로 더 깊이 다룰 필요도 있으나, 여기에서의 초점을 다르므로 더 말하지는 않는다.

김필레는 단순히 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사업을 권한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유익을 끼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후천적 동성연애의 폐해를 말하면서도 “이 폐습이 계속되는 한도 내에는 성적 본능으로 순화(純化)시켜 생산적 방면에 활동할 길을 막으니 사회적으로도 만흔 해를 끼치게 되는 것”(77)이라고 하여 성 문제가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할 개인을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남자가 사창으로 나아가는 원인을 설명하는 앞선 인용(101)에서도 개인이 사회적 생산 의무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잘 드러난다. 곳곳에 이런 태도가 보인다.

사실 이런 태도는 김필레 자신의 독특한 생각이거나, 김필레 혼자 의도적으로 그런 담론을 만들어냈다가 보다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형성되고 있는 담론에 따른 반응이었다. 국운이 쇠퇴하여 일제 강점기에 들기 직전과 직후에 특히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정과 자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미화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907년 창간된 『가정잡지』에 이런 글이 발표되었다.

대저 하늘이 사람의 자녀를 만드실 때 천륜만 소중할 뿐 아니라 허다한 의무와 허다한 사업으로 그 부모에게 부탁하여 가르쳐서 세상에 쓰이게 함이요, 결단코 한 사람에게 매임이 아니니, 우리나라 아들 둔 동포여 여러분이 아들을 사랑하여 기를 때에 아들에 덕을 보고자 바라지 마시오. 샅을 받고자 바라지 마시오. 아들 보기를 내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일하러온 일꾼으로 아시고 진실하고 용맹스러운 일꾼을 만들기에 힘쓰시오. 참 여러분의 아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큰 사업을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께 샅도 드리고 공도 표하리다.¹⁷⁾

17) “자식은 부모만 위하러 난 줄 아는 병”, 『가정잡지』 1년 3호, 1906.8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하러 온 일꾼”이라는 논리가 여러 번에 걸쳐 강조되었으며 결혼과 가정, 자녀 모두가 사회적인 일꾼으로 명명되었다. 같은 잡지 7호에서는 “세상에 사람이 생긴 후에 남녀 간 합하여 배필이 되지 아니하면 가족의 사회를 이룰 수도 없고 인류가 번성하여 국가 사회도 될 수 없고 기타 천만 사위의 경영도 없을 것”¹⁸⁾이라 하기도 하는 등 비슷한 논리를 주창한 글이 많다.¹⁹⁾

가정이라는 사적 공동체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는 일체강점기 초기의 이런 경향은 192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1920년대에 이루어진 계급주의 운동의 논리도 그런 것이었다. 여성을 교육시켜 교양을 갖추게 하자는 것, 남녀평등론 등도 여성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위한 것이기 보다 현모양처로서 민족 독립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하였음²⁰⁾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김필레의 성교육 논리와 특징은 이런 사회적 경향에서 나온 것이다. 소위 근대적인 의미의 국민 만들기, 가족 만들기라는 목적 속에 이루어지는 논의를 남녀 성 교육에까지 연결한 것이 김필레가 한 일이었다. 성의 유혹, 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 사이의 불화나 부정을 막는 방식으로 ‘사회에 이바지 하는 생산적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2. 결혼은 정신, 육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결합하는 것

김필레는 성교육 내용을 서술하면서 특히 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약혼 기간을 바로 보내는 법을 설명하면서 ‘결혼식은 정신적, 육체적 결합

18) “가정지남”, 「가정잡지」 1년 7호, 1907.1(전미경, 2005, 71. 재인용)

19) 예컨대 전미경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살피면서 근대계몽기 가족에 관한 논의를 ‘국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명명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소명출판, 2005).

20) 이노우에 가즈에, “조선 ‘신여성’의 연애관과 결혼관의 변혁”, 문옥표 외, 『신여성』(청년사, 2003), 156-157 등 다수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을 시인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피차에 한 번 더 얽어매는 것이다. 만일 경제적 합치가 결핍된 결혼 생활이면 이는 완전한 결혼생활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결혼이 정신과 육체의 결합일 뿐 아니라 '경제적' 결합이라고 규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합치가 결핍된 결혼은 완전한 결혼이 아니라고까지 하였다.(26) 약혼생활, 연애생활을 했다가 변심으로 상대방에게 버려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사실혼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이라는 예식을 만인 앞에서 할 것이며, '경제 살림'을 완전히 함께 하여야 부부가 된다고 한 것이다.

결혼 생활이 불행해 지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보통 부부간에 이러나는 불행의 원인은 경제에 관한 사건이다"(52)라 규정하기도 했다.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가 살림 경비를 충실히 책임지고 써서 남편의 신용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남편에게는 더 특별한 언급을 했다.

어떠한 정도의 교육과 상식이 있는 안해에게는 살림할 돈과 그 안해 자신의 용비를 정기적으로 주고 그 안해 개인의 용비 쓰는 일에 대하여서는 간섭하지 말 것이다. 그 안해 되는 녀자도 만일 혼인치 안이하였으면 또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것이 안이나. (52)

한마디로 아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즉 아내만의 용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용돈 쓰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아내를 가사를 하는 사람으로만 볼 뿐 그 개인의 필요와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부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1930년대에도 사회전반의 가족제도가 바뀌지 않은 탓에 구여성은 물론 이요 신여성이라도 일단 결혼을 하면 여자는 부모를 모시고 가정에 들어앉아 살림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김필레는, 여자도 혼인 때

문에 가사에만 몰두하게 되지 않았으면 그 시간만큼 수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부 갈등의 원인을 살피면서 자유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의 아내를 부각시킨 것뿐 아니라,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도 인정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주장이다.

김필례가 성교육을 다루면서 경제적인 면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녀가 ‘산아제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더 부각된다. 김필례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6장 전체를 산아제한(産兒制限)이라는 제목으로 할애하여 강조하였다. 사실 산아제한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가 『인구론』에서 과잉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기반으로, 1914년 미국의 마거릿 생어(Margaret Sanger)가 처음 제창한 것²¹⁾이다. 이 주장이 조선에 제대로 소개되지도 않은 때에 김필례가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받지 안이 함은 죄다’라는 등 종교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말하면서도 산아제한이 당시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확히 말하였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자녀가 만히 출생해야 교육은 고사하고 의식조차 당할 힘이 없으며 그 모친은 다산(多産)의 수고와 경제적 압박이며 가사의 고역에 시달려서 자녀를 귀한 선물이라기보다 악한 재화의 표현으로 녀여 그 자녀를 저주하며 팔자를 원망하는 녀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모친뿐 아니라 힘에 췌치는 살님의 뒤를 대이려 땀흘리며 허덕이는 그 부친의 수고와 고통이 어떠한지 험벗고 굶주리며 남과 같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동들의 고생과 그 장래가 어떠한지. 그런즉 교양의 준비나 예산이 서지 못한 가정에 다수의 자녀가 출생될 때에는 그 가족 전체에게 고통이 새기고 그 일가와 사회—반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함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런고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얻음은 개인으로 위시하여—반 사회에까지 큰 행복이라 하

21) 서강훈, 『사회복지용어사전』 ‘산아제한(birth control)’ 항목, 이담북스.

겟다.(57~58)

한마디로 산아제한의 필요를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시키고, 아이 양육 문제가 가정과 사회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대 우리나라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산아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친, 부친은 물론 아동 자신의 상황, 사회 일반의 상황까지 말한 것이다. 그런 후에 ‘산아 제한은 곧 임신 제한(妊娠制限)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가지 피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산아제한을 제안하면서도 그 한계는 명확히 하였다. 유전병이 있는 경우, 가세가 빈한하여 양육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했다, “다른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산아 제한의 방법을 사용함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줄로 생각”(60)한다고 천명했다.

이외에도, 김필레는 어느 부분을 설명하든지 이혼, 혼인, 자녀출산 등 남녀 간에 일어나는 여러 관계를 말하면서 ‘경제적인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이혼은 “녀자측에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를 죽이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37)이라고 규정하기도 했고, 혼인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 사람의 조건을 말하면서 “경제적 안전을 능히 보증할 만한 재조”(65)를 언급하기도 했다. 어느 면에서나 꼭 ‘경제적’ 면을 강조하였다.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바뀌고, 일제 수탈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전국을 휩쓸며, 동시에 자유연애나 성(性) 혹은 맹목적 사랑이 사회 전반을 휩쓰는 유행이 되어 있는 시기에, 김필레의 안목으로는, 남녀 간 성과 결혼에서 ‘경제’적인 면이 반드시 부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3.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처

김필레는 남녀관계에서 법률적인 면을 강조한 특징도 보인다. 그는, 불

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 중 하나로 ‘비법률적 혼인’을 들었다. 비법률적 혼인이란, 혼인을 하고 보니 남자에게 이미 아내가 있는 경우이다. 조혼하여 시골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러 나간 남자가, 신여성에게 끌려 미혼남 혹은 이혼남이라 속이고 결혼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한 여인을 법률상 아내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생긴 문제였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결혼제도는 사실혼주의였다. 하지만 1923년 7월부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였다. 봉건사회와 같은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일부일처제 사회였기에 법률상 아내는 당연히 하나이고, 호적에 오르지 않으면 그 어떤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²²⁾ 조혼의 풍속이 남아 있고, 구여성/신여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특히 신여성이 비슷한 학식을 지닌 남성과 혼인하려 할 때 비법률적 혼인의 덫에 빠질 위험이 높았다.

김필레는 비법률적 혼인 문제를 말하면서, 최근에 만난 27세의 여인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고등보통학교 3학년을 마친 이 여인은 시골 어느 자산가 자제와 혼인을 하였다. 민적까지 살피 미혼임을 확인했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지 못하여 그 본처는 여전히 시가에서 시집살이에 골몰중이며 민적은 과연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고 따라서 시가에는 발도 드러노하 보지 못하고 민적에는 올 수가 없는 사실을 발견”(46)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울부짖으며 2~3년의 세월을 보냈으나 “그 남자는 다시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는 말 한 마디로 차버리고 말았”고, 여자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 공장에도 들어가기 어려워 “정신적 번민 고통과 육체의 주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였다.

김필레가 예로 든 경우 같은 처지의 여성이 당대에 상당수였다. 당시

22)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2부인: 식민지 근대 자유연애 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22-4(한국여성학회, 2006) 참고.

우리나라에는 조혼의 풍속이 남아 있어 한 남자가 10대 초반 혹은 10대 이하에도 혼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수학(修學)을 위해 집을 떠난 이들이 총각 행세를 하며 혼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여자 측에서 혼인을 할 때 서류를 확인하기도 하나 조작한 서류를 내미는 일도 상당수였다. 전봉관 교수는 1930년대에 『조선일보』의 ‘어찌하리까’ 부분, 『조선중앙일보』의 ‘명암의 십자로’ 부분을 살핀 연구물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 교수가 주목한 이 코너는, 독자가 자신의 고민을 적어 상담할 내용을 보내면 사회 명사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소개된 사연 상당수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있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 1933년 9월 2일자에는 19세 여인의 사연이 실렸다. 작년에 전문학교 2학년 학생인 남자와 혼인했고 결혼할 때 민적등본까지 교환해서 미혼인 것을 확인했는데 결혼 후 고향에 가보니 본처와 일곱 살 딸까지 있더라면서 어찌할까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답변을 적은 기자는 ‘남편이 3년만 기다려 주면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말대로 기다리면서 그 사이 공부나 하면서 남편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적었다.²³⁾ 이런 사연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어찌다 한 명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의 규모였던 것이다.

비법률적 혼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김필레는, 우선 여자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질책한다. “경성서 시골 부자의 아들이 리혼했다는 말과 당자가 제출한 민적만을 보고 결혼식을 거행함은 과연 너무 경솔치 안이했는가. 그곳에 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을까”라면서 실제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조사해 봐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여성이 들었으면 야속한(?) 말일 수 있겠지만, 김필레는 서류 조작이 가능

23) 전봉관, 『경성 고민상담소』(민음사, 2014), 53-95.

한 시대에 단지 서류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밖에도 김필례의 냉철한 해결책은 다른 이들과 상당히 달랐다. 앞서 소개한, 『조선일보』 1933년 9월 2일자 ‘결혼 후 보니 남편에 아내가 있더라’는 사연에 상담 답변을 적은 기자는 “남편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했다. 요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여처구니없는 상담내용이라 하겠지만, 당시 학식이 있는 신여성이라도 이미 사실상 혼인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기자의 답변이 어불성설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김필례는 다른 주장을 한다.

만일 한번 실수하여 법률에 위반된 결혼임을 알았으면 일시라도 더 지체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더 상하고 몸이 더 쇠하며 명예가 더 떨어지기 전에 속히 그 불량한 남자, 나를 속인 남자를 떠나야겠다. 정(情)을 못 잊어서 하로나 이들을 더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같은 때에는 반듯이 랭정한 두뇌로 좌우를 분명히 살핀 후 단호한 방침을 용맹스럽게 취함이 극히 필요하다. 남의 사정을 도라보고 그 애원에 이끌려 주저하지 말자. 나를 구원할 자는 나 자신밖
서에 없는 것을 자각지 안으면 망한다.(48~49쪽)

법률에 위반된 결혼임을 아는 즉시 남자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냉정한 두뇌로 좌우를 살피고 단호한 방침으로 용맹스럽게” 하라고 한다. 그 상황은 주저하는 만큼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그 상황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원자는 남편도 아니요 사회도 아닌 ‘나 자신’밖에 없다고도 했다. 여성의 각성을 격려하고 단호히 일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당대 다른 이들의 상담내용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그로부터 80여년 가까이 지난 오늘의 누군가 말한 것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단호한 목소리이다.

남녀 관계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중시한 점은 교회와 주례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중혼(重婚), 사기결혼과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당시 교회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해 두었다. 당시 조선예수교장로회 혼인조례를 보면 “四. 주례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주례자가 반듯이 량방의 민적등본과 그 당회 보증서를 받아서 조사하여 확실무의한 후에 레식을 집행할 것. 五. 가취에 대한 혼인증서는 행례하는 그 날에 적당히 수속할 것이니 주혼자와 당자와 주례자가 서명 날인하여 신랑 신부가 각각 一통씩 영구보존하여 확실한 증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즉 주례시에 주례자가 신랑신부 양측의 민적등본과 당회보증서를 조사해서 확실하게 한 후에야 예식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필레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겨 추가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요구가 되는 것은 주례자가 반듯이 결혼 신고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즉 신랑측에서는 결혼식장에 나가기 전에 결혼신고를 준비하였다가 혼례식이 끝나자 곧 그 결혼신고를 정부에 제출케하여 모든 법률상 장애나 위험을 면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주례자는 결혼신고의 제출을 친히 보기 전에는 이 결혼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자각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32~33)

주례자가 결혼 전 서류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혼인 것이 확실한 사람과 혼인을 하였지만, 몇 년 후 사랑이 식어 남편이 떠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때 보니 남편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있으니 신고 완료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레 스스로도 주례자가 이렇게까지 한 전례가 없는 것과, 주례자가 요구해도 개인이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아주 없이하려면” “이 조건을 총회나 기타 치리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후에 —정한 규례를 작성하여야 용이히 실행될 줄 안다”면서 교회법 규정 주장까지 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고, 서로 상대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 분복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당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에서 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필레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 일단이 결혼 예식 주관과 주례자의 역할에서 좀 더 강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교회와 당회가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V. 김필레 『성교육』의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1920~30년대 우리나라 사회는 성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던 때였다. 성을 교육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실시를 논한 것은 성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던 결과였다. 성교육에 관한 논의는 1920년대 말에 처음 일어났다가 1933년 13세 소녀의 출산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1933년 전후의 이런 상황에 특별히 기독교교육자 중 대표적인 인물인 김필레가 직접 성교육 내용을 담아 책으로 편찬한 것이 바로 『성교육』이었다. 이 책에서 김필레는 미혼의 남녀뿐 아니라 기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의 신체적 특성, 연애나 결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를 하였다. 앞선 논의를 통해서, 남자가 고상한 인격으로 성욕을 조절하고, 생산적인 일에 열심을 내어 사회에 기여할 것, 남녀관계 및 결혼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를 중시할 것, 결혼에 관한 법률적 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김필레가 강조하였음을 제시하였다.

김필례의 『성교육』은 당시 성교육의 필요성만 외칠 뿐 실제 교육 내용을 제시한 것이 드문 때에 최초로 발간한 성교육 서적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기독교계에서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성교육서는 없었다. 요즘과 비교할 때 80여년 이상 앞선 시기의 서적이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깊이나 구체성에서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의의를 낮추어 잡을 수 없다.

또, 모든 서술을 마무리 하면서 김필례는 마지막으로 “모든 위험 중에서 나의 몸을 방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며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위험을 막을 만한 능과 힘이 오히려 약함을 느낄 것”(108)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종교적 필요를 말하였다. 구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혼자 방에 앉아 난관을 생각하고 한숨 쉬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령과 육의 살 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일하자. 활동하자!”(109)고 하며 이 책을 끝맺었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하고 바로잡을 것을 말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종교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김필례의 마지막 권면이었다. 이 책의 또다른 의의가 있다면, 기독교교육자로서 성 문제로 어지러운 당대 사회에 대해 대처한 한 예를 보여주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성의 문제는 지금도 공공연하게 말하기가 꺼끄러우니 1930년대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단지 ‘금지’, ‘한탄’ 운운하거나 무조건 ‘자유’, ‘개인’ 운운하던 때에 기독교 교육자가 먼저 움직임에 나선 것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꺼끄럽다고 피할 때에 오히려 전면에서 나서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쳐 인도’하는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 그렇다. 당시에도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언론에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무조건 ‘금지’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수적 반대 의견 제시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계, 기독교윤리계의 상황을

볼 때 김필례와 당시 기독교교육계의 대처는 그래서 더 의의가 있다. 현대 기독교윤리측에서 말하는 성교육이 김필례의 성교육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앞서 제시한 의의만으로도 김필례의 시도와 서적은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다.

이 책에는 독신생활, 산아제한, 연애결혼²⁴⁾ 등 당대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진보적인 언급들도 많다. 이들 각각의 의의와 현대와의 연관성은 더 다룰 만하지만 이 글의 논점과 어긋나고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생략했다.

24) 요즘에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사랑이 있어서 적법하게 결혼하고, 사랑이 식으면 아무런 미련 없이 헤어지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결혼을 뜻하는 용어로 썼다.

참고문헌

- 가와무라 구니미쓰 저, 손지연 역, 『섹슈얼리티의 근대-일본 근대성가족의 탄생』, 논형, 2013.
- 간노 사토미 저, 손지연 역, 『근대 일본의 연애론』, 논형, 2014.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 정지영,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2부인: 식민지 근대 자유연애 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22-4, 한국여성학회, 2006.
-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일상생활과 근대 결혼제도-잡지편』, 민속원, 2010.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 박차민정, 『1920~30년대 '성과학' 담론과 '이성에 규범성'의 탄생』, 『역사와 문화』 22, 문화사학회, 2011, 29~51.
- 조셉 브리스토우 저, 이연정·공선희 역, 『섹슈얼리티』, 한나래, 2000, 17~35.
- 전미경,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출판, 2005.
- 전봉관, 『경성 고민상담소』, 민음사, 2014.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171~202.

논문투고일: 2017년 06월 18일

심사게시일: 2017년 0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1920~30년대 우리나라는 '연애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남녀 간 성(性), 사랑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 현상에 휩싸여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성도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1933년 전후였다. 한국 YWCA 창시자 중 한 사람이자 대표적인 여성 기독교교육자 중 한 사람인 김필레는 1935년에 『성교육』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김필레는 미혼 청소년 뿐 아니라 기혼 남녀가 마주하게 되는 성과 결혼 관련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하였다. 그의 성교육 내용에는 당대 사회를 고려한 몇 가지 특별한 강조점이 있다. 첫째, 성욕을 고상한 인격으로 조절하고, 사회에 대해 기여하는 생산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결혼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이라면서 경제부분을 특히 강조하였다. 셋째, 결혼의 법률적인 면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주례를 맡은 교회가 취할 행위를 촉구했다. 성교육에 관해서 다들 그 필요성만 제기하던 때에 구체적으로 성교육 내용을 정리해냈었다는 점에 이 책의 의의가 있다. 또, 당시 사회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문제에 대해 기독교교육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한 예가 된다는 데에 이 책의 또다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성교육, 사춘기, 성욕, 김필레, 『성교육』, 법률혼, 중혼(重婚)
